

#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셰필드 대학교
파견기간	18. 09. 24. ~ 19. 2. 1.
프로그램	학기제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저는 '트립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친구와 함께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유학생 보험은 학교 측에서 안내해준 한화 유학생 보험을 들었고, 비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셰필드 대학교 측에서 준 공항 레터로 영국 공항에서 6개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나. 필요 물품

화장품, 겨울 옷, 각종 생활 용품, 비상약품 등등. 한국 음식과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 내에 아시안 마트가 꽤 많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사용하게 될 카드는 2개 이상 발급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하나 VIVA 체크카드와 신한 글로벌 멀티카드를 추천합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팁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가는 굉장히 비싼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식을 할 때에는 원화 기준 적어도 15,000원 정도는 주어야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유럽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기도 했고, 영어를 배우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나-2. 공항 - 학교

많은 학생들이 영국으로 입국할 때 셰필드 주변에 있는 맨체스터 공항을 이용했지만 저와 제 친구는 좀 더 저렴한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

서 입국과 출국을 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맨체스터 공항으로 갔고, 그 곳에서 기숙사 관계자를 만나 저희를 픽업해서 기숙사로 갔습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수강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고, 월~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영어 배웠고, 오후에는 영국의 사회, 문화, 기술, 문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저희 기숙사는 아파트 같이 한 층에 3개의 방이 있었고, 그 방에는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주방과 공동 거실이 있었습니다. 한 명당 한 개씩 방을 사용할 수 있었고, 각 방에는 화장실이 각각 있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총 6명의 학생들이 셰필드 대학교로 왔는데 저희 끼리 생활할 수 있도록 6인실 방을 배정받아 생활하였습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셰필드 대학교에 다니는 현지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Korean Society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곳에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셰필드 대학교에는 수 십개의 Society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는 ELTC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학교 생활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식값이 너무 비싸서 저는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다행히 TESCO나 ALDI같은 마트에서 식재료들을 한국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먹었습니다. 교통도 한국 기준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걸어 다녔지만 걸어다니기 힘든 경우에는 트램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에는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학생증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12월 중순이 되면 학기가 끝이 나는데 이 때부터 한 달 동안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저는 프랑스와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여행했고, 학기 중에는 아이슬란드도 다녀왔습니다. 이 중에서 최고였다고 생각되는 여행지는 바로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지만 물가가 비싼 것이 하나의 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영국에서 라면과 핫반과 같은 충분

한 식재료들을 사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5~6명 정도로 그룹을 만들어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았던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였고 그런 경험들은 지금의 저로 성장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나서 후회하지 않게끔 많은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